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	배포일자 2021년 10월 31일(일) 총 3매	 환경특별시 인천		
담당 부서 미래산업과	담 당 자 • 로봇산업팀장 송용석 ☎440-3106 • 담당자 김미영 ☎440-3108				
사진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인천시, 中 웨이하이시와 ‘로봇산업 육성’ 위해 맞손

- 로봇분야 기술협력, 기업교류, 시범사업 등 로봇산업발전 업무협약 체결 -
 - 로봇기업 간 민간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지난 28일 중국 웨이하이시와 한·중 FTA 지방경제협력의 일환으로 미래전략 산업인 로봇산업의 육성과 교류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 인천시가 로봇분야로 국외 도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
양 도시는 로봇산업의 상호 발전과 상생을 위해 ▲양 국가(도시)간 로봇산업 공동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협력사업 추진(특화로봇 발굴 및 육성, 로봇 시범사업 추진 등) ▲로봇분야 상담회, 포럼 등 기업 교류와 협력활동 ▲ 로봇 미래 新기술 공동 연구개발 ▲로봇대회, 캠프, 인력양성 등 로봇산업 저변확대 ▲로봇기반 인공지능(AI), 모빌리티, 5G 등 미래 산업(기술) 분야에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 추진을 약속했다.

이번 업무협약은 같은 날 중국 웨이하이시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‘제4

회 한중FTA 지방협력 공동위원회’ 개최를 계기로 인천시에 로봇분야 협력을 제안하면서 행사 일정에 포함해 진행 됐으며, 양 도시 바이오 산업, 경제통상 분야 등 관계자들이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(비대면)으로 체결했다.

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“웨이하이시는 한·중 FTA 지방경제 협력 시범도시로 인천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·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,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적으로 로봇이 주목받는 가운데, 오늘 협약이 양 국가의 로봇산업 발전에 기폭제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, 이번 지방정부간의 공공협력을 시작으로 로봇기업 간 민간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” 라고 말했다.

<붙임> 관련사진

